



[요약] 수출물가, 두가지를 더 생각해본다

1. 비용의 전가 패턴

- 수출금액이라는 개념은 결국 명목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혹은 경제에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개념을 도입할 필요.
- 실제로 수출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기업들의 수출우려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원자재비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이 언급.
- 수출기업들은 원자재가격이나 환율변동에 대응을 위하여 수출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결국 채산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출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수준이 이어지는 것.

2. 빠르게 상승하는 수출물가지수

- 금년 3월 수출물가지수 상승률은 달러기준으로 보면 전년비 +13.9%, 계약통화기준으로는 +12.9% 수준이 나타나는 등 급등세가 발생
- 이러한 상승기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의 상승 등과 같은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유로존 및 아시아 주요국에서의 수출물가지수도 최근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

3. 실질수출, 수출금액보다 중요해질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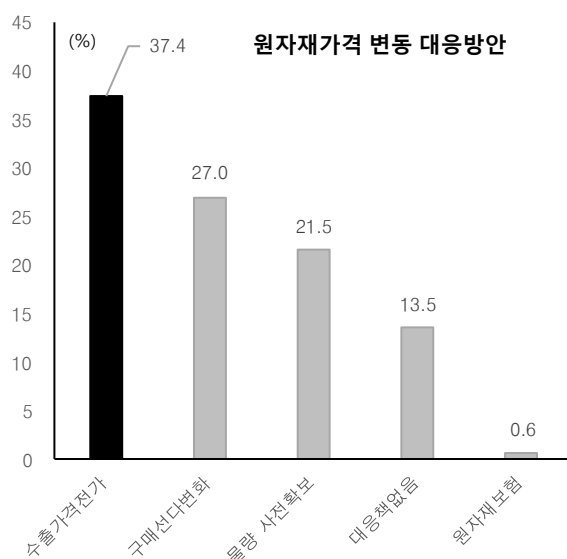
- 실질수출은 명목수출인 수출금액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음. 실질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까지 꾸준히 회복
- 그러나 이후 금년 3월까지로 보면 실질개념의 수출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또한 이는 실물경제와 동행하는 지표인 산업생산에 약 12개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4월 23일자 “수출물가, 두가지를 더 생각해본다” 참조.**

1. 비용의 전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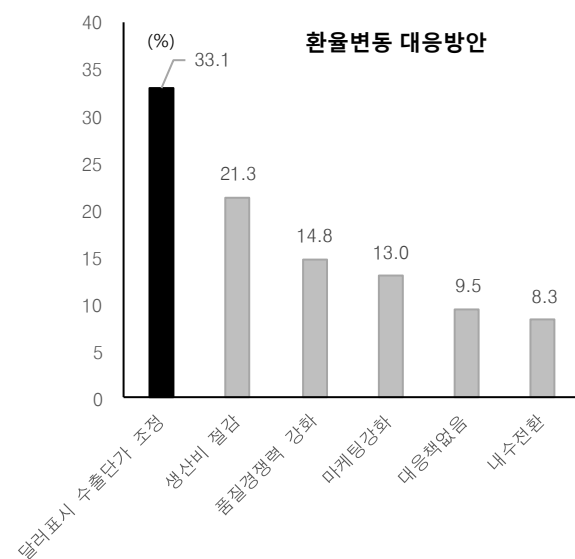
수출흐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지표 쇼크의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이므로 수출증가율에 대한 판단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에서의 수출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금액이라는 개념은 결국 명목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혹은 경제에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출금액에 반영시키게 된다면 실질적인 기업 혹은 경제에의 기여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기업들의 수출우려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원자재비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행(2013)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과 관련된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채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수출가격에 전가하는 방법이며, 이어서 구매선 다변화와 물량 사전확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은 달러표시 수출단가의 전가를 언급하고 있는 등 채산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수순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트1] 수출기업들의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수출가격의 전가.



[차트2] 수출기업들의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달러표시 수출단가 조정.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빠르게 상승하는 수출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를 한국에서는 총 3가지의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달러기준 지수는 달러로 계산한 수출재화들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의 수출물가지수에 대한 최근의 추이는 금년 들어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3월 수출물가지수 상승률은 원화기준 전년비 +5.6%를 기록하였지만, 달러기준으로 보면 전년비 +13.9%, 계약통화기준으로는 +12.9% 수준이 나타나는 등 급등세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원화기준보다 달러기준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결국 수출금액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한국의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측정).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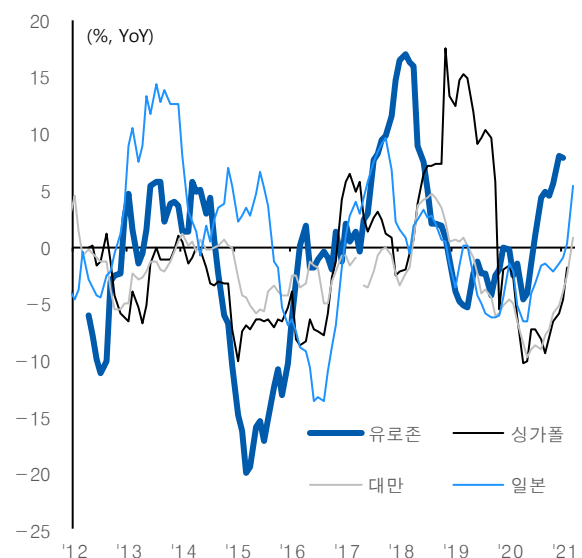
특히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기조는 원자재가격의 회복 이후 진정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시차를 두고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속도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승기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의 상승 등과 같은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로존 및 아시아 주요국에서의 수출물가지수도 최근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차트3] 한국에서 집계되는 수출물가지수는 달러기준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중.



[차트4]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국의 수출물가지수도 일제히 상승모멘텀 형성.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실질수출, 수출금액보다 중요해질 국면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조짐을 보이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은 결국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 개념에서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개념은 명목개념에서 물가수준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실질수출은 명목수출인 수출금액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적용시키는 물가를 수출물가지수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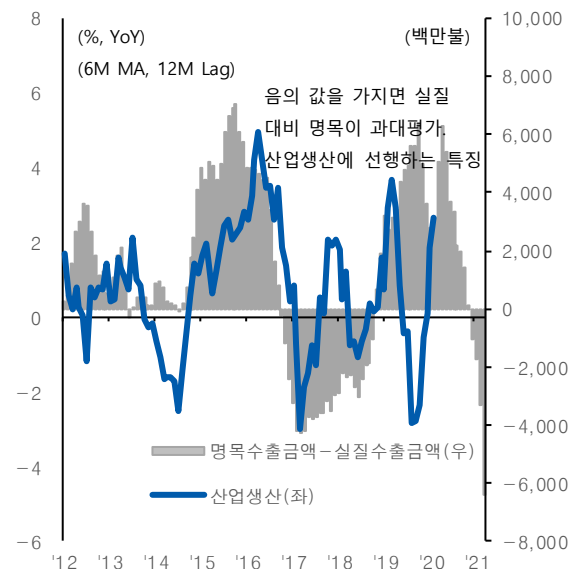
동 방법을 적용하여 실질수출을 도출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수출추이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둔화되었던 실질수출증가율은 11월까지 꾸준히 회복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 금년 3월까지로 보면 명목수출증가율이 높아졌지만 달러기준 수출물가상승률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개념의 수출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실물경제와 동행하는 지표인 산업생산에 약 12개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자세한 내용은 4월 23일자 “수출물가, 두가지를 더 생각해본다” 참조.

[차트5] 수출증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물가도 동시에 상승.



[차트6] 명목수출금액과 수출물가를 반영한 실질수출금액의 상대적 크기 비교.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